

## 영어 결과절의 어휘적, 제약적 분석

소 대 영

(경동대학교)

Soh, Dae-Young. 1999. A Lexical, Constraint-based Approach to English Result Clause. *Linguistic Research* 17, 57-85. *So, such, too, and enough* among various groups of degree words have their complements and a discontinuous dependency property with the complements, like comparative elements(-er, as, more, less). The traditional mechanisms to deal with these constructions are transformational rules (Bresnan(1973), Baltin(1975)), interpretative rules, and a mix of the two(Gueron & May(1984)). Chomsky(1977) tries to explain these characteristics of result clauses with Move- $\alpha$ . But he cannot give an account of the specificity of *many-to-one* relation between degree words and a resultative complement in finite result clauses, and of infinitive result clauses occurring resumptive pronoun in terms of the movement concept. In this paper, therefore, I show how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finite result clauses and infinitive result clauses in the framework of Sag(1987, 1992, 1996) and the proposals of Soh(1996). Furthermore, I propose new constraints to handle various properties of each result clauses. (Kyungdong University)

### 1. 서론

여러 가지 등급어(degree words) 중에서 *so, such, too, enough*와 같은 결과절을 촉발하는 어휘들은 다른 등급어와 달리 *more, less, as*등과 같은 비교소처럼 각기 독특한 보어를 가지며 또 그 보어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런 결과절을 다루기 위한 논의는 주로 변형 규칙에 의한 것들(Bresnan(1973), Baltin(1975))과 해석 규칙에 의한 것들 그리고 두 가지를 절충하여 분석한 것들(Gueron and May (1984))이 있다. Chomsky(1977)에 이르러서는 Move- $\alpha$ 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등급어와 *that* 결과절 보어 사이에 *many-to-one*의 관계를 보이는 한정시제 결과절과 복귀대명사(resumptive pronoun)가 나타나는 부정시제 결과절 등의 특성을 이동 가설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절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고 비이동 비변형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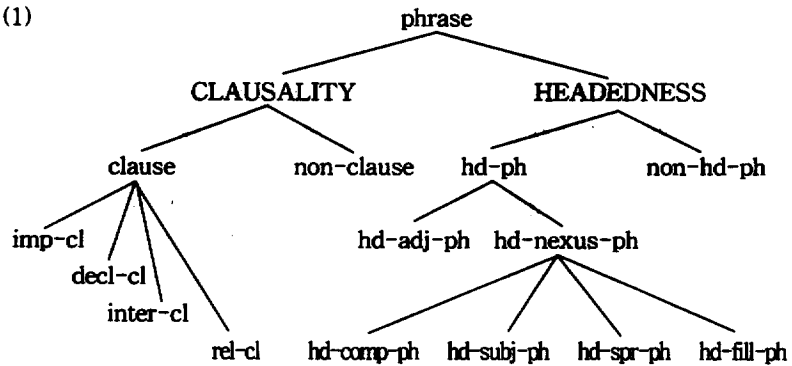
인 Sag(1987, 1992, 1996)의 제약 이론을 바탕으로 한정시제 결과절과 부정시제 결과절의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인다. 또 비교구문의 분석을 위해 소대영(1996)에서 제시된 외치 보어 규칙과 핵-추출소 제약이 결과절 분석에도 필수적임을 보임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그 밖에 논의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 구문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Sag(1996)의 제약 이론을 확장시킨다.

## 2. Sag(1996)의 제약 이론

### 2.1 Sag(1996)의 X'-이론

지배 결속(Government-Binding:이하 GB로 약칭) 이론의 X'-이론은 수많은 전통적인 구절 구조 규칙을 가장 추상화한 것으로써 사전부의 정보와 함께 Move- $\alpha$ 로 통칭되는 여러 가지 변형의 조작과 원리에 따라 문장을 생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통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통사, 의미, 형태 및 음운 부문을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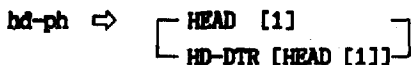
반면에 핵어 중심 구구조 이론(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이하 HPSG로 약칭)은 변형의 개념을 없애고 실제 언어 사용을 토대로 명시적인 언어 기술을 목표로 하며 통사부분 뿐만 아니라 의미, 음운, 형태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포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GB에서 보다는 다소 많은 수의 구 유형들이 제시되고 각 구 유형들은 나름대로의 자질 정보 제약을 받게 된다. 다음은 Sag(1996)의 구 유형도이다.



위의 유형도에서 핵성(HEADEDNESS)에 속하는 것들은 종전의 구절 구조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약 이론에서는 GB와 달리 Move- $\alpha$ 를 인정치 않고 주어와 지정어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다소 많은 수의 구 유형을 가정하게 된다. 또 절성(CLAUSALITY)에 속하는 것들은 각각의 절에 대한 특성을 자질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함으로써 나중에 여러 원리의 적용을 통하여 별도의 장치가 없이도 각 구문의 음운, 통사 및 의미 특성 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구(phrase)는 핵성에 따라 핵어-구(hd-ph) 또는 비핵어구(non-hd-ph)로 나뉘며 각각은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핵어-구(hd-ph)를 살펴보면 이는 핵-부가어(hd-adj-ph) 구조와 핵-통계구(hd-nexus-ph)로 나뉘며 이중 후자는 다시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핵-충전소구(hd-fill-ph), 핵-주어구(hd-subj-ph), 핵-보어구(hd-comp-ph) 그리고 핵-지정어구(hd-spr-ph) 등으로 나뉜다. 이들 각각의 유형은 나름대로의 자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차례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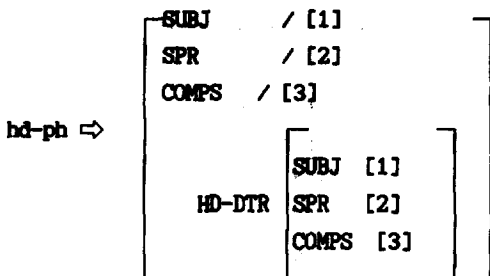
모든 핵어구(hd-ph)는 핵자질 원리(Head Feature Principle)를 적용받아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 Head Feature Principle(핵자질 원리)



(2)의 내용은 핵범범주의 핵자질 값([1])이 그 모범주의 핵자질 값 ([1])과 같아야 함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모든 핵어구(hd-ph)는 다음과 같은 항가 원리(Valence Principle)를 적용받아야 한다.

(3) Valence Principle(VALP):(항가 원리)



항가 원리(VALP)의 효과는 어떤 구의 항가 자질은(항가 자질에 대한 다른

제약을 적용 받지 않는다면), 그 구의 핵탈범주의 항가자질 값과 같다는 것을 보장한다.

모든 핵통계구(hd-nexus-ph) 유형은 다음과 같은 빈보어 제약 (Empty COMPS Constraint)을 적용 받는다.

(4) Empty COMPS Constraint(ECC): 빈보어 제약

$$hd-nexus-ph \Rightarrow [HD-DTR [COMPS / \text{e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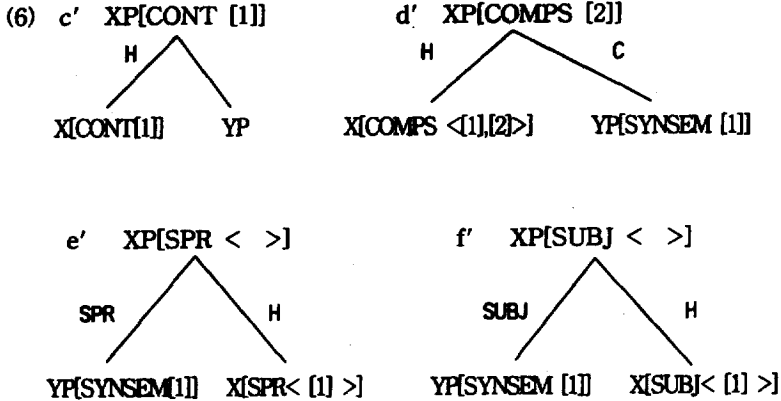
(4)의 효과는, 보어에 대하여 핵-보어구 유형처럼 다르게 언급되는 경우 (이때는 핵탈범주의 보어 목록이 비어있지 않을 수도 있음)가 아니라면 핵어구의 핵탈범주가 이미 모든 보어들을 소비하여 보어 목록이 비어 있을 것을 보장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것들과 함께 영어의 각 구 유형들에 대한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Phrasal Types(구 유형들)

TYPE	CONSTRAINT	ISA
(a) <i>phrase</i>		<i>sign</i>
(b) <i>hd-ph</i>	HFC, VALP	<i>phrase</i>
(c) <i>hd-nexus</i> <i>-ph</i>	ECC, $\left[ \begin{array}{l} \text{CONT} [1] \\ \text{HD-DTR} [\text{CONT} [1]] \end{array} \right]$	<i>hd-ph</i>
(d) <i>hd-comp</i> <i>-ph</i>	$\left[ \begin{array}{l} \text{COMPS} [2] \\ \text{HD-DTR} \left[ \begin{array}{l} \text{COMPS} \left[ \begin{array}{l} \text{FIRST} [1] \\ \text{REST}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NON-HD-DTR} [\text{SYNSEM} [1]] \end{array} \right]$	<i>hd-nexus</i> <i>-ph</i>
(e) <i>hd-spr-ph</i>	$\left[ \begin{array}{l} \text{SPR} \text{ elist} \\ \text{HD-DTR} [\text{SPR} < [1] >] \\ \text{NON-HD-DTR} [\text{SYNSEM} [1]] \end{array} \right]$	<i>hd-nexus</i> <i>-ph</i>
(f) <i>hd-subj-ph</i>	$\left[ \begin{array}{l} \text{SUBJ} \text{ elist} \\ \text{HD-DTR} [\text{SUBJ} < [1] >] \\ \text{NON-HD-DTR} [\text{SYNSEM} [1]] \end{array} \right]$	<i>hd-nexus</i> <i>-ph</i>

(5c-f)에서 속성이 행렬로 표시된 제약들을 알기 쉽게 나무 구조로 표현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c')는 모든 핵어구는 의미내용(CONTENT)에 대하여 별다른 제약이 없으면 핵어의 의미내용이 곧 그 구의 의미내용과 같다는 의미 원리에 해당한다. (6d')는 종전의 하위범주화 역할을 하며 핵어가 가지고 있는 보어 목록에서 자매 범주로 구현된 것([1])을 뺀 나머지 목록([2])이 그 구의 보어 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6e')는 지정어 딸범주를 허가하는 것으로서 핵딸범주 속에 있는 지정어(SPR) 목록 값([1])이 실제 딸범주(YP)의 SYNSEM 값과 같아야 함을 나타내며 이때 모교점의 지정어(SPR) 값은 비어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6f')는 주어딸범주를 허가하는 것으로서 핵딸범주 속에 있는 주어(SUBJ) 목록 속의 값([1])이 실제 주어딸범주(YP)의 SYNSEM 값과 같아야만 함을 나타내며 이때 모교점의 주어(SUBJ) 값은 비어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6d',e', f')의 유형들은 그의 상위 유형인 (6c')의 제약과 빈보어제약(ECC)을 적용 받으나 이중에서 (6d')는 보어에 대한 특수 제약이므로 빈보어제약(ECC)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6c',d',e',f')는 핵자질원리(HFP)와 항가원리(VALP)를 적용 받으나 이중 (6d', e', f')는 항가원리에 대한 특수 제약이므로 항가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절 유형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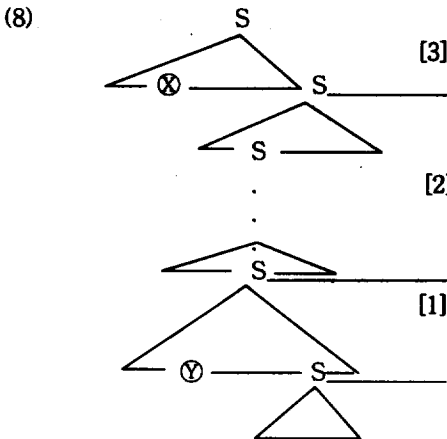
(7) 절 유형들

TYPE	CONSTRAINT	ISA
(a)decl-cl	[CONTENT proposition]	clause
(b)inter-cl	[CONTENT question]	clause
(c)imp-cl	[CONTENT directive]	clause
(d)rel-c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HEAD</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div style="margin-bottom: 5px;">MC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V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MOD [noun]</div>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CONTENT proposition</div> </div>	clause

위 제약에서 (7a)는 서술문의 경우 그 문장의 의미 내용이 서술 내용이어야만 함을 나타내고 (7b)는 의문문의 경우 의문의 의미 내용을, (7c)의 명령문의 경우 명령의 의미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7d)의 관계절에 대한 제약에서 [MC-]는 주절이 아님을, [INV-]는 도치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MOD[noun]은 명사를 수식함을 나타낸다. 한편 이때의 의미 내용은 서술내용이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2. 2 무한 의존 구문에 대하여

GB에서 주로 *wh*-이동 현상으로 분석하는 구문들(관계절, 의문문 및 간접 의문문들)을 Gazdar(1981)등의 일반 구구조 문법 주창자들은 무한 의존 구문(Unbounded Dependency Construction)으로 칭하고 이들 구문들을 비이동 비변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무한 의존 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요소, 즉 (8)의 그림에서 ㉠와 ㉡간에 의존 관계가 맺어진다는 점과 그 의존 관계가 절경계(clause boundary)를 넘어서서 적용됨으로써 두 요소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Gazdar, Klein, Pullum & Sag(1985:이하 GKPS(1985)로 약칭)에서의 무한 의존 구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8)에서 [1]의 부분이 바닥(bottom)에 해당하는데 발자질(FOOT Feature), 즉 공소(gap)나 관계 대명사 자질(+R) 및 의문사 자질(+Q)이 생기는 부분으로써 공소(gap)의 경우 사선 종결 상위규칙1(SLASH Termination Metarule:이하 STM 1으로 약칭)과 자질 공기 제약 19(Feature Cooccurrence Restriction 19)에 의하여 허가된다. 반면에 관계대명사 자질이나 의문사 자질은 관계대명사나 의문사의 어휘 정보로부터 직접 추출됨으로써 바닥을 형성한다.<sup>1</sup>

(8)의 [2] 부분은 중간(middle)에 해당하며 바닥(bottom)에 구현된 발자질(FOOT Feature)들이 상위의 통로를 따라서 계속 전달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 GKPS(1985)에서는 발자질 원리(FOOT Feature Principle)를 도입하고 있다.<sup>2</sup>

한편 (8)의 [3] 부분이 꼭대기(top)에 해당하며 [1] 부분에서 생긴 자질들이 [2]의 중간 부분을 통해 올라온 다음 더 이상 상위 교점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곳이다. 사선(SLASH)의 경우를 예로 들면 GKPS(1985)에서는 전위된 요소를 허가하기 위한 새로운 구절 구조 규칙( $S \rightarrow X^2, H/ X^2$ )을 만들어 충전소( $X^2$ )와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사선 자질( $/X^2$ )의 의존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더 이상 사선 자질이 상위의 통로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 준다.

핵어 중심 구조조 문법(HPSG)에서 추출과 수반 현상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긴 하나 근본적으로 방금 살펴 본 일반 구조조 문법과 같은 맥락

<sup>1</sup> GKPS(1985)에서의 사선 종결 상위 규칙 1과 자질 공기 제약 19는 각각 다음과 같다.

a. 사선 종결 상위 규칙 1(SLASH Termination Metarule 1)

$$X \rightarrow w, X^2$$

$$\downarrow$$

$$X \rightarrow w, X^2 [+NULL]$$

b. FCR 19: [+NULL]  $\supset$  (SLASH)

<sup>2</sup> GKPS(1985)의 발자질 원리는 발자질(SLASH, WH, RE) 중 어떤 자질이 한 교점(node)에 구현된다면 그것은 그의 모교점에도 구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에서 분석된다. P&S(1994)에서는 관계절 문법과 관련된 추출과 수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한 의존 구문(UDC)의 중간에 적용되는 GKPS(1985)에서의 발자질 원리를 비국부 자질 원리(Nonlocal Feature Principle)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ag(1996)에서는 비국부 자질 원리를 위해 사용되었던 상속자질(INHERITED), 결속자질(TO-BIND)등의 개념이 없어지고 비국부 자질 원리는 다른 제약으로 대체된다.<sup>3</sup>

Sag(1996)의 무한 의존 구문의 바닥에서 생성되는 자질은 추출 현상에서의 공소에 해당하는 사선(SLASH) 자질과 수반 현상에 해당하는 관계사 자질(REL) 및 의문사 자질(QUE)이 있다. 이 중 사선 자질(SLASH)은 다음과 같은 보어 추출 어휘 규칙(CELR)에 의하여 도입된다.

(9) Complement Extraction Lexical Rule: (보어 추출 어휘 규칙)

$$\left[ \begin{array}{l} \text{word} \\ \text{COMPS } [1] \text{ } \circ \text{ } \langle \text{gap} \rangle \end{array} \right] \Leftrightarrow [\text{COMPS } [1]]$$

(9)와 규칙은 출력 부분의 논항 구조(ARG-ST) 속의 한 요소를 공소(gap) 유형의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며 이때의 공소 유형은 다음 제약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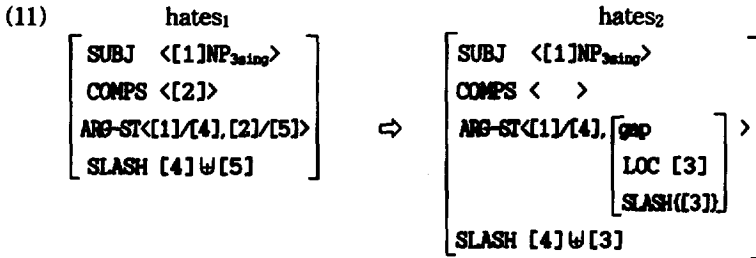
$$(10) \text{ gap-synsem} \Left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LOCAL } [1] \\ \text{SLASH } \{ [1] \} \end{array} \right]$$

즉 보어 추출 어휘 규칙(CELR)의 역할은 보어를 하나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ARG-ST 요소를 공소(gap) 유형으로 만들며 이때의 공소 유형은 다시 (10)을 적용 받아 그의 LOCAL 값을 그의 사선자질(SLASH) 집합의 한 요소와 같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보어 추출 어휘규칙(CELR)은 *hate* 동사의 경우에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sup>3</sup> P&S(1994)에서의 결속 자질(TO-BIND)은 무한 의존 구문의 바닥에서 생성되어 중간을 거쳐 올라온 상속자질(INHERITED)을 결속시켜서 더 이상 상위 교점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자질이다. 한편 무한 의존 구문의 중간을 지배하는 비국부 자질 원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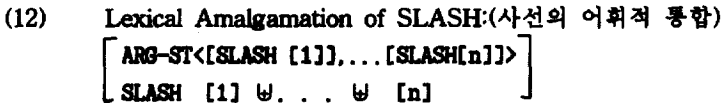
- a. 비국부 자질 원리(Nonlocal Feature Principle)  
 구에 있는 비국부자질의 INHERITED 자질값은 그 딸교점들의 INHERITED 자질값에서 핵어딸에 있는 TO-BIND 자질값을 빼고 난 나머지의 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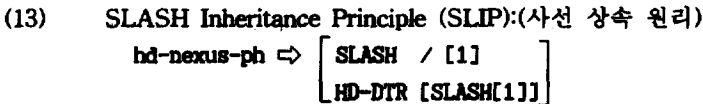


이런 보어 추출 어휘 규칙의 출력에서 [3]의 LOCAL 값은 그 동사의 직접목적어 NP에 대한 모든 국부정보, 즉 범주, 격, 의미내용, 그리고 일치 정보를 포함하며 이 출력은 곧 무한 의존 구문의 바닥을 형성하게 된다.

(11)에는 이미 다음과 같은 제약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일단 바닥에서 사선 자질이 생성되면 그 사선 자질(SLASH)이 P&S(1992)와 달리 일단 핵어에 등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12)에 의하여 만일 한 동사의 보어가 사선 자질을 가지면 그 동사 자체가 사선 자질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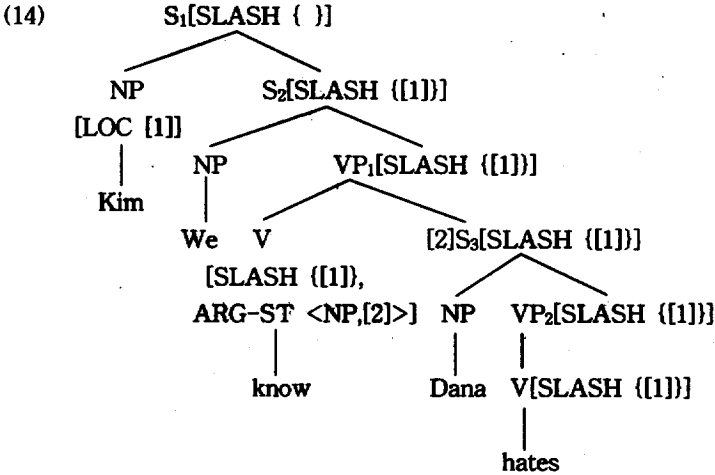


핵어에 등재된 사선 자질이 상위 교점으로 계속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무한 의존 구문(UDC)의 중간(middle)을 지배하는(GKPS(1985)의 발자질 원리에 해당) 원리는 다음과 같은 사선 상속 원리이다.



(13)의 사선 상속 원리는 한 구의 사선자질값이 그 핵말범주의 사선자질값과 같음을 보장한다. 이때 주어말범주, 보어말범주등은 그와 모교점에 그의 사선자질값을 결코 통과시킬 수가 없으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는 (12)가 적용되어 그 핵말범주의 중재를 통해 상속되는 것이다.

이들 원리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14)에서 일단 *hate*에 (9)의 보어 추출 어휘 규칙과 (10)의 제약이 적용되어 사선자질 값 [1]이 생성된 다음(UDC의 바닥에 해당), (12)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hate*는 자신이 핵어이므로 (12)가 무위 적용되게 되고 이 핵어속의 사선자질은 (13)의 사선상속 원리에 의하여 VP<sub>2</sub>를 거쳐 S<sub>3</sub>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S<sub>3</sub>는 *know* 동사의 보어이므로 (12)의 적용을 받아 다시 SLASH 정보로 [1]을 *know*가 갖게 되고 이는 다시 (13)의 적용으로 S<sub>2</sub>까지 올라간 다음 국부정보(LOC)가 [1]인 NP로 구현된 다음 그 의존 관계를 마무리 짓는다.

S<sub>2</sub>까지 올라간 사선값이 그 왼쪽에 있는 NP로 구현된 다음 더 이상 상위교점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Sag(1996)의 다음과 같은 제약이다.

### (15) Phrasal Types

(15g)가 하는 역할은 핵말범주의 사선자질값과 충전소말의 LOCAL 값이 같을 경우 그 의존관계를 마감하고 그 사선값에 한해서는 더 이상 상위 교점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이다. 또 (15h)가 의도하는 것은 어떤 한정시제 충전소 핵어구는 항상 문장으로된 핵말범주를 가지도록 하는 것과 어떤 사선자질값도 더 이상 상위 교점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결과절의 일반적 특징과 분석 장치

TYPE	CONSTRAINT	ISA
(g)hd-fill-ph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SLA [2]                  HD-DTR [ HEAD verbal                  SLASH([1]) ∪ [2] ]                  NON-HD-DTR [local [1]]             </div> <div style="font-size: 4em; margin-right: 10px;">}</div> </div>	hd-nexus-ph
(h)fin-hd-fill-ph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SLASH ( )                  HD-DTR [ HEAD verb                  VFORM fin                  SUBJ &lt; &gt; ]             </div> <div style="font-size: 4em; margin-right: 10px;">}</div> </div>	hd-fill-ph

### 3.1 무한의존성

여러 가지 영어의 등급어(degree words) 중에서 *too*, *enough*, *so*, *such* 등은 다른 보통의 등급어와 달리 다음 예문들과 같이 각기 독특한 보어를 취하며 그 보어는 핵어인 등급어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Baker(1989))

- (16) a. This book is *so* big [that it doesn't fit on the shelf.]
- b. Doris ate *such* a big lunch [that she fell asleep in class.]
- c. *So* many minnows were fed to the dog [that Martha lost her temper.]
- d. *Such* upsetting meeting took place yesterday [that everyone resigned from the Budget Council.]
- e. The chicken is *too* hot [ for you to remove from the package.]
- f. The chicken is cool *enough* [ for you to remove from the package.]

(16)의 예문들에서 *so*, *such*, *too*, *enough*와 같은 등급어들이 동사, 형용사, 명사, 전치사처럼 핵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음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Baltin(1987))

- (17) a. \* John was hungry that he would eat anything,
- b. John was *so* hungry that he would eat anything.
- c. \*John was tired to work.

(17a)가 비문인 것은 *so* 등급어가 *that* 결과절을 보어로서 선택하는 핵어임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그 보어가 한정시제인지 부정시제인지도 각각의 등급어가 결정해준다.(Baltin(1987))

- (18) a. John was *so* tall that he hit his head on the overhead lamp.  
 b. \*John was *so* tall to fail to hit his head.  
 c. John was *too* tall to fail to hit his head.  
 d. \*John was *too* tall that he failed to hit his head.  
 e. John was tall *enough* to hit his head.  
 f. John was tall *enough* that he hit his head.

(18 a, b)로부터 *so*는 *that* 절만을 결과절로 취하고 (19 c, d)로부터 *too*는 부정시제 결과절만을 취하며 (18e, f)로부터 *enough*는 부정시제절과 *that* 결과절을 모두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절극 결과절은 등급어가 핵어로서 각각의 독특한 보어를 취하며 그 보어는 원래 허가된 위치로부터 오른쪽의 다른 곳으로 무한히 전위된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특성은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비교소 *as*, *more*, *less* 등이 각기 독특한 비교절 보어를 허가하고 그 보어가 오른쪽으로 무한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같다.(Baker(1989))

- (19) a. Joseph became *as* famous [as Thelma became.]  
 b. Caspar spent *more* money [than Bernie spent.]  
 c. Molly encountered *less* trouble [than Walter encountered.]

이상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본 무한 의존 구문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구문과 결과절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 3.2 의치 보어 규칙과 핵-추출소구 제약

Sag(1996)의 무한 의존 구문의 바닥에서 형성되는 비극부자질, 즉 관계사자질(REL), 의문사자질(QUE) 및 사선자질(SLASH) 중에서 비교 구문과 결과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추출현상에서의 공소에 해당하는 사선자질이다.

그러나 소대영(1996)에서는 비교 구문을 분석하면서 바닥(bottom)부분을 위하여 의치자질을 새롭게 도입하고 다음과 같은 의치보어 규칙을 제

안하였으며, 또 꼭대기 부분을 위하여 핵(Head)-추출소(Extract)구 제약을 제안하였다.

(20) a. 의치 보어 규칙

$$X \begin{bmatrix} +DEG \\ COMP<[1]> \end{bmatrix} \Leftrightarrow X \begin{bmatrix} +DEG \\ COMP < > \\ EXTRA<[1]> \end{b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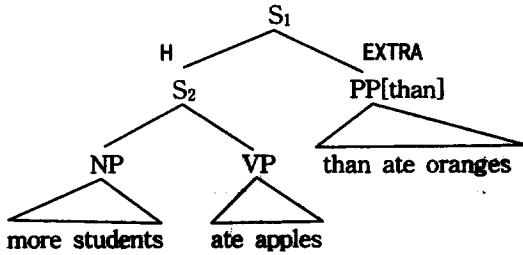
b. Phrasal Types

TYPE	CONSTRAINT	ISA
(i) <i>hd-extra-ph</i>		<i>hd-nexus-p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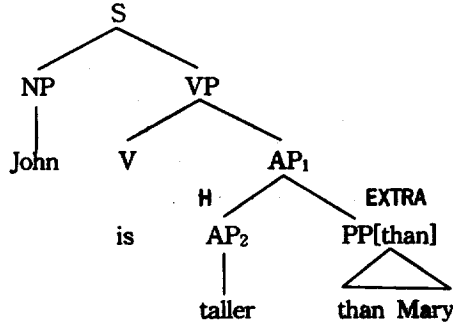
(20a)의 규칙의 내용은 어떤 어휘적인 핵어가 핵자질로서 등급자질을 갖는 동시에 보어를 가지면 그 보어를 멀리 추출시킬 수 있는 의치 자질을 가져야만 한다는 내용으로서 보어를 취하는 등급어 핵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 구문과 결과질의 무한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출현상에서의 공소에 해당하는 사선자질(SLASH)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자질(EXTRA)을 구태여 도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 때문이다. 첫째, 공소자질(SLASH)을 허가하는 (9)의 규칙은 (20)의 의무규칙과 달리, 보어를 취한 어떤 핵어에도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둘째, SLASH에 의해서 전위된 요소는 항상 핵어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반면에 EXTRA에 의해서 전위된 요소는 항상 핵어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셋째, SLASH에 의해서 전위된 총전소는 verbal 요소에만 부착될 수 있는 반면에 EXTRA에 의해서 전위된 요소는 다음과 S는 물론이고 모든 XP에 의치 요소가 부착될 수 있다.<sup>4</sup>

<sup>4</sup> P&S(1987)에서는 FILLER<HEAD[LEX-] 라는 LP4 규칙을 설정하여 ‘총전소는 항상 그 핵어보다 왼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보장한다. (20b)에서의 추출소(비핵탈범주)가 항상 핵어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고에서는 HEAD[LEX-]<EXTRA 라는 또 다른 LP 규칙을 가정한다.

(2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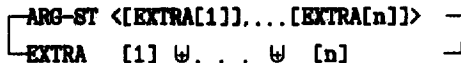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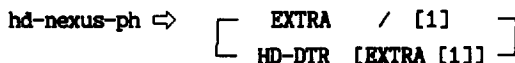
(20a, b)의 제안은 다음절에서 자세히 언급될 결과절의 분석에도 그대로 이용되어 그 타당성을 확인 받게 될 것이다.

한편 (20a)의 규칙이 바닥을 형성하도록 외치 자질을 부여하게 되면 추출소가 구현되어 무한 의존성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상위교점으로 이 외치 자질을 상속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SLASH를 지배하는 (12)와 (13)의 원리를 빌어 쓸 수 있으며 논의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a. Lexical Amalgamation of EXTRA:(외치 자질의 어휘적 통합)



b. EXTRA Inheritance Principle (SLIP):(외치자질 상속 원리)



(22a)의 제약의 내용은, 일단 바닥에서 외치 자질이 생성되면 그 외치 자질이 일단 핵어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핵어에 등재된 외치 자질이

상위 교점으로 계속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2b)와 같은 외치 자질 상속원리이다.

#### 4. 결과절 분석

비교 구문과 한정시제 결과절 및 부정시제 결과절의 공통적인 특성은 (20b)에 제시된 제약으로 잘 포착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한정시제 결과절과 부정시제 결과절의 각기 독특한 특성을 어떻게 포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 4.1 한정시제 결과절

한정시제 관계절의 첫 번째 특징은 (23)의 예문들과 같이 *so*와 *such*가 한정시제 *that* 결과절을 취하며 그 결과절 속에서 어떤 공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aker(1989))

- (23) a. This book is *so* big [ that it doesn't fit on the shelf.]  
 b. *So* many people stayed for lunch [that all the food was eaten immediately.]  
 c. Doris ate *such* a big lunch [ that she fell asleep in class.]  
 d. Jerry writes *such* long articles [that his newspaper refuses to print them.]

첫 번째 특징 중에서 *so*와 *such*가 *that* 결과절을 보어로 취한다는 사실은 하위범주화 정보로서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나머지 특징인, 'that 결과절로부터는 어떤 요소도 추출될 수 없다'는 내용을 Sag(1996)의 방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된다.

- (24) *fin-result-cl* ⇔ [INHISLA { }]

(24)의 내용은 한정시제 결과절 유형은 비국부 자질로서 사선자질값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 번째 특징으로 언급되어 (30)에서 제약으로 반영된 내용, 즉 '한정시제 결과절은 맨 끝에 위치한다'는 제약과 함께 'that 결과절 속에서는 어떤 요소도 추출될 수 없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한정시제 결과절의 경우 Ross의 'Right Roof

Constraint',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소들은 그들이 생성된 절 밖으로 이동될 수 없다'는 제약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다음 (25)의 결과절이 옳은 문장으로 적법하게 설명되기 위해서는 that 결과절이 그 대명사(*her*)를 지배하는 교점보다 높은 교점에 부착되어야 함이 틀림없다. (Baltin(1975) (1987), Gueron & May(1984))

(25) I told *her* that so many people attended last year's concert that I made *Mary* nervous.

(20b)의 핵-추출소구 제약은 외치된 요소가 어떤 XP에도 부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25)의 that 결과절을 S가 아닌 다른 XP에 부착하도록 분석한다면 (25)의 문장을 비문으로 잘 못 설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정시제 결과절의 두 번째 특징, 즉 that 결과절은 반드시 S에 부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24) 제약을 다음과 같이 확장한다.

(26) fin-result-cl ⇔  $\left[ \begin{array}{l} \text{INH:SLA } \{ \} \\ \text{HD-DTR[S[fin]]} \end{array} \right]$

세 번째 특징은 한정시제 결과절이 관계절과 한 문장에서 공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절이 관계절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Baltin(1975) (1987))

- (27) a. People were so angry who knew John that they refused to participate.  
 b. \*People were so angry that they refused to participate who knew John.

(27)의 자료는 두 번째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that 결과절이 반드시 S에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음 예문들과 함께 한정시제 결과절이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해만 한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Baker(1989))

- (28) a. ?\* So many minnows [ that Martha lost her temper] were fed to the dog.  
 b. So many minnows were fed to the dog [ that Martha lost her temper.]  
 (29) a. ?\* Such an upsetting meeting [that everyone resigned from the Budget Council] took place yester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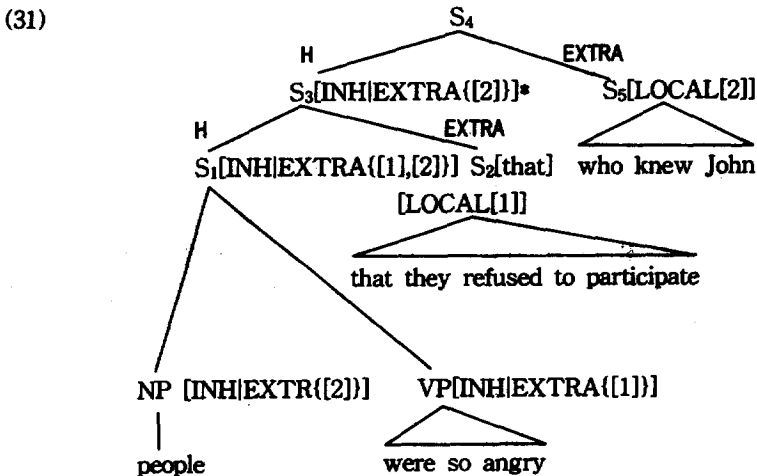


b. *Such* upsetting meeting took place yesterday [ that everyone resigned from the Budget Council.]

새 번째 특징은 어떤 구나 절도 한정시제 결과절을 넘어서서 외치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26)의 유형제약에 추가하면 결국 (30)과 같은 최종적인 한정시제 결과절 유형의 제약울 얻게 될 것이다.<sup>5</sup>

$$(30) \quad \text{fin-result-cl} \Leftrightarrow \begin{bmatrix} \text{INH|SLA} ( ) \\ \text{INH|EXTRA} ( ) \\ \text{HD-DTR[S[fin]} \end{bmatrix}$$

(30)의 제약이 주어졌으므로 (27b)와 (28a) 및 (29a)의 비문법성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은 (27b)의 간결한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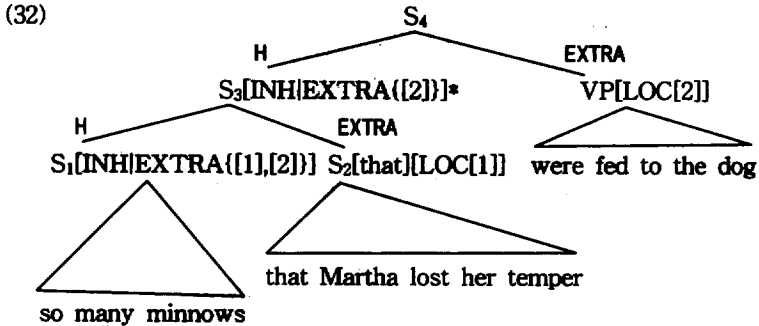


(31)의 분석에서 S<sub>1</sub>에 있는 외치 자질값 [1]은 외치말인 S<sub>2</sub>의 극부자질값 [1]과 같으므로 그 무한의존성을 적법하게 마치게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S<sub>3</sub>에 있는 외치 자질값 [2]는 S<sub>5</sub>의 관계절을 외치시키기 위하여

<sup>5</sup> 한정시제 결과절이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30)의 제약과 주 4)에 언급된 HEAD[LEX-]<EXTRA의 LP 규칙이다. 이 LP 규칙에서 EXTRA 자체가 한정시제 결과절이며 (30)의 제약은 이 한정시제 결과절의 오른쪽에 자매로 부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한편 (30)의 제약 속에 HEADMOD none, REL( ), QUE( ) 등의 제약을 따로 넣지 않는 이유는 Sag(1996)의 절(clause) 제약에 이 내용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S<sub>3</sub>는 한정시제 결과절이므로 어떤 외치자질값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30)의 제약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27b)의 문장은 비문이라고 옮겨 설명할 수 있다.

(28a)와 (29a)는 유사하므로 (28a)를 대표로 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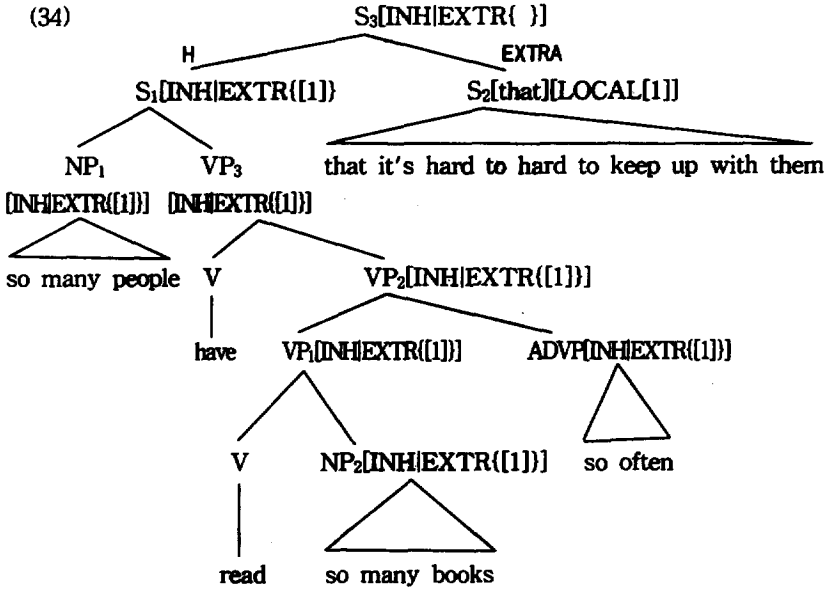


(32)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VP의 외치자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한정시제절인 S<sub>3</sub>에 그에 상응하는 외치자질값이 있어야 하나 이렇게 되면 (30)의 제약을 어기게 되므로 역시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시제 결과절은 다음과 같이 한 문장 내에서 다중의 동급어들과 연관될 수 있어서 소위 many-to-one의 관계를 보인다. 이때 that 결과절은 단 하나만 나와야하며 그것도 절 맨 끝에 위치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QP 교점 아래 있던 결과절이 통사적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분석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한 자료들이다.(Baltin(1987), Gueron & May(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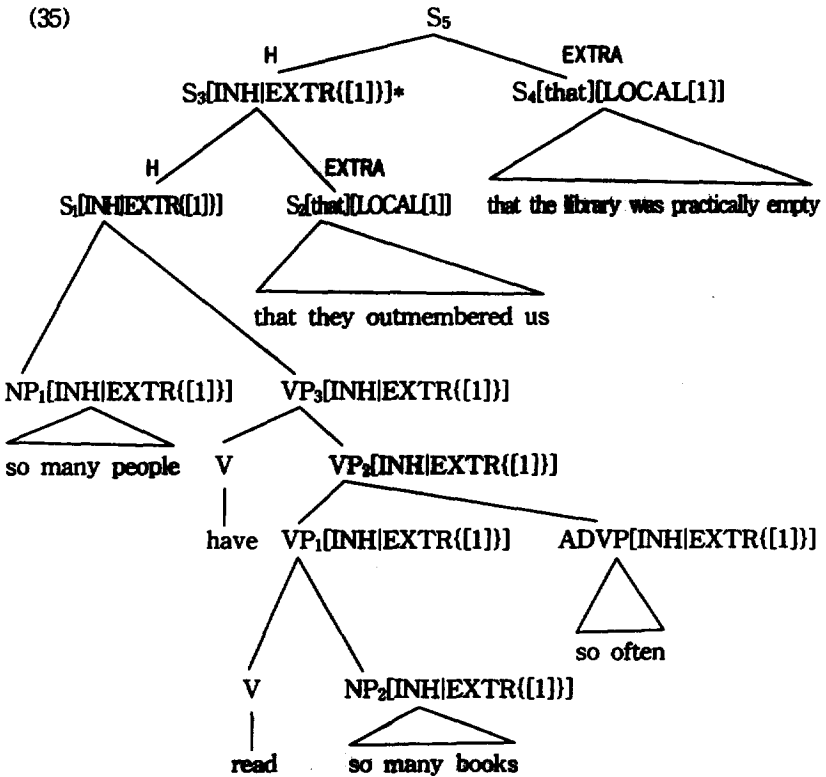
- (33) a. *So many people have read so many books so often that it's hard to keep up with them.*  
 b. *\*So many people have read so many books so often that they outnumbered us that the library was practically empty.*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33a)의 문장과 (33b) 문장 사이의 문법성의 차이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33a)의 분석이다.



(34)의 분석에서 외치 자질값은 각각 NP<sub>1</sub>과 NP<sub>2</sub> 그리고 ADVP 쪽의 세 군데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NP<sub>2</sub>에서 나타나는 외치 자질값과 ADVP에서 나타난 외치 자질 값은 각각 VP<sub>2</sub>에서 같은 값을 갖게 되어 다시 하나의 값 [1]로 통합된다. 이 외치 자질 값은 S<sub>1</sub>까지 올라가게 되고 다시 NP<sub>1</sub>으로부터 올라온 외치자질값과 [1]로 통합되어 나타나는데 이 값은 S<sub>2</sub>의 국부 자질값과 일치하게되어 그 무한 의존성을 마감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33a)의 문장은 윽게 정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33b) 문장의 분석이다.



(35)의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S<sub>3</sub>이다. S<sub>3</sub>는 한정시제 결과절이므로 (30)의 제약에 의해서 외치자절값이 비어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므로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18f)처럼 *enough* 가 that 결과절을 취할때에도 *so* 나 *such* 가 that 결과절을 취할 때와 똑같은 분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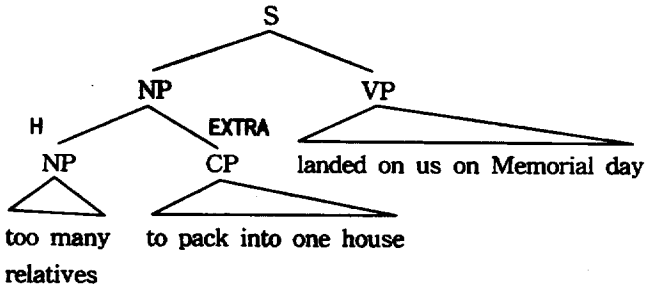
### 3.2 부정시제 결과절

이번에는 부정시제 결과절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분석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다음 자료들은 앞에서 살펴 본 한정시제 결과절과 달리 *enough/too*와 관련된 부정시제절은 그의 등급어가 나타나는 구속에서 머물 수도 있고 문장의 맨 뒤에서 나타나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Baker(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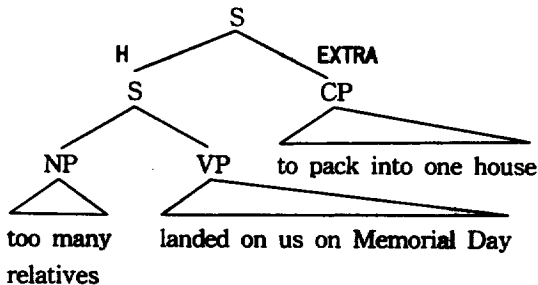
- (36) a. *Too many relatives* [ to pack into one house] landed on us on Memorial day.
- b. *Too many relatives* landed on us on Memorial Day [ to pack into one house.]
- c. *Enough ice cream* [ to keep the children happy] had been brought to the picnic.
- d. *Enough ice cream* had been brought to the picnic [ to keep the children happy.]

(36) 문장들의 특성은 부정시제 결과절에 관한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핵-추출소구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의치말 범주가 모든 XP에 부착 가능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반면에 한정시제 결과절의 경우는 반드시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을 필요로 했다. 다음 (37)은 (36a)를, (38)은 (36b)를 대강 분석한 것이다.

(37)



(38)



(37)은 의치말 범주가 NP에 부착되었고 (38)은 S에 부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때 의치말 범주가 CP로 분석이 된 것은 다음 두 번째 특성을 논의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둘째, 부정시제 결과절은 (39)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oo/enough*가 부정시제 보어를 취하며 이때 보어 부분에 목적격 명사구가 하나 빠져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이 빠진 명사구가 그 모문의 주어(*the chicken*)와 공지시되며 [for NP]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40)의 *tough*-구문의 특징과 닮았다.(Baker(1989))

- (39) a. The chicken is *too* hot [ for you to remove from the package.]
- b. The chicken is cool *enough* [ for you to remove from the package.]
- c. \*You removed from the package.
- d. You removed it from the package.
- e. John is *too* nasty to make friends with.
- (40) a. Kim<sub>i</sub> would be *easy* to bribe <sub>j</sub>.
- b. Kim<sub>i</sub> would be *easy* to prove Sandy bribed <sub>j</sub>.
- c. John is *easy* for us to please <sub>j</sub>

공연산자(empty operator)를 인정하지 않는 Sag(1992)의 *tough*-구문에 대한 분석 방법은 *easy* 형용사가 주어인 *Kim*과, 그 주어와 공지시되는 목적격 명사가 하나 빠진 부정시제 동사구를 하위범주화 하도록 하며 또 [for NP]를 수의적으로 하위범주화 하도록 하여 (40a, b, c)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의 *to*와 *for*를 두 가지 부정시제를 이끄는 보문자로 간주하는 Sag(1996)의 입장에서는 [for NP]를 하위범주화 내용에 넣을 필요가 없다. *to* 부정사구나 *for-to* 부정사구나 둘다 CP[*inf*]로 통일하여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g(1996)에서 가정하는 두 가지 부정시제 보문자 (C<sup>0</sup>)의 어휘적인 정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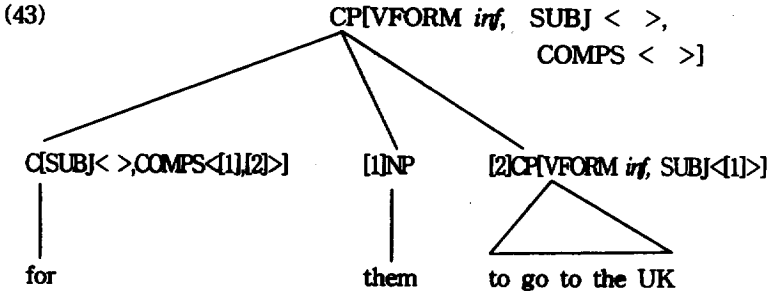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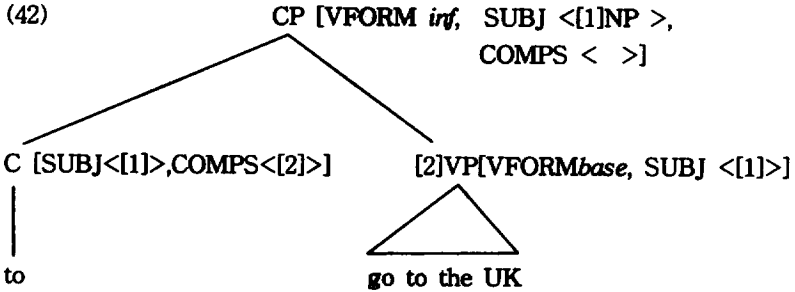
- (41) a. *to*

HEAD [ <i>comp</i> [VFORM <i>inf</i> ] SUBJ <[2]> COMPS< VP[ <i>base</i> , SUBJ<[2]> ]
---
- b. *for*

HEAD [ <i>comp</i> [VFORM <i>inf</i> ] SUBJ < > COMPS<[1]NP, CP[ <i>inf</i> , SUBJ<[1]> ]
--

(41a)에서 *to*는 비록 보문자이지만 주어를 상승시키는 요소이다. 그래서 그 주어값이 그의 불포화된 보어의 주어값([2])과 같다. 또 (41b)에서 보문자 *for*는 필수적으로 목적어를 상승시키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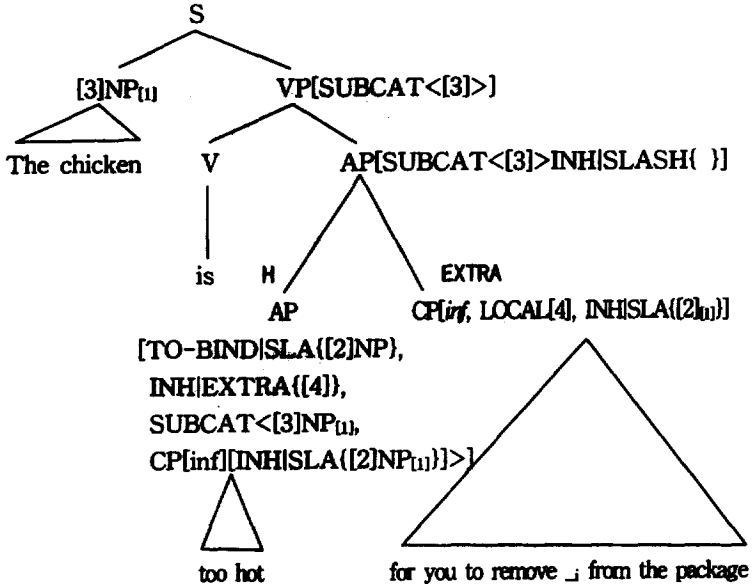
(41)의 어휘적 정보는 다음과 같은 핵-보어구를 형성한다.



(42), (43)의 for/to 구의 구조는 보통의 S'나 CP 구조와 다르지만 이런 평 구조를 반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Sag(1996))

Sag(1996)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면 *too/enough* 등의 동급어나 *tough* 형용사가, 주어와 그 주어와 공지시되는 목적격 명사가 하나 빠진 CP[*inf*]를 하위범주화 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39)나 (40)을 설명할 수 있다. 즉, (39a)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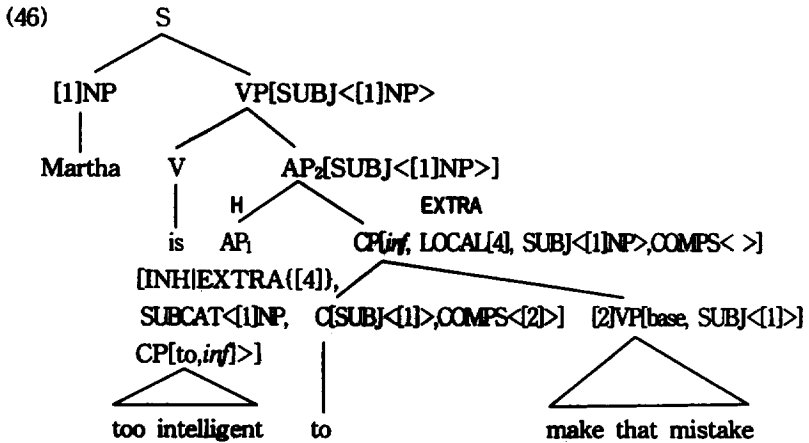
(44)의 분석이 Sag(1992)의 tough-구문의 분석방법과 다른 것은 부정시제 결과절의 경우 (20b)에서 제시된 제약을 적용 받아 AP에 부착된 외치말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부정시제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for NP]가 나오지 않는 결과절이 있다는 것이다. (45)의 부정시제 결과절들은 어떤 명사구도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그 형용사구의 주어들이 부정시제구의 주어와 일치한다는 특성을 갖는다.(Baker(1989))

- (45) a. Martha is too intelligent [ to make that mistake.]
- b. John is old enough [ to take care of himself.]

이런 특징은 *too*나 *enough*가 <NP[SUBJ], CP[to, inf]>를 하위범주화 하는 또 다른 등급어로 간주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CP[to, inf]는 주어를 상승시키는 요소이므로 CP의 주어가 *too*나 *enough*의 주어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45a)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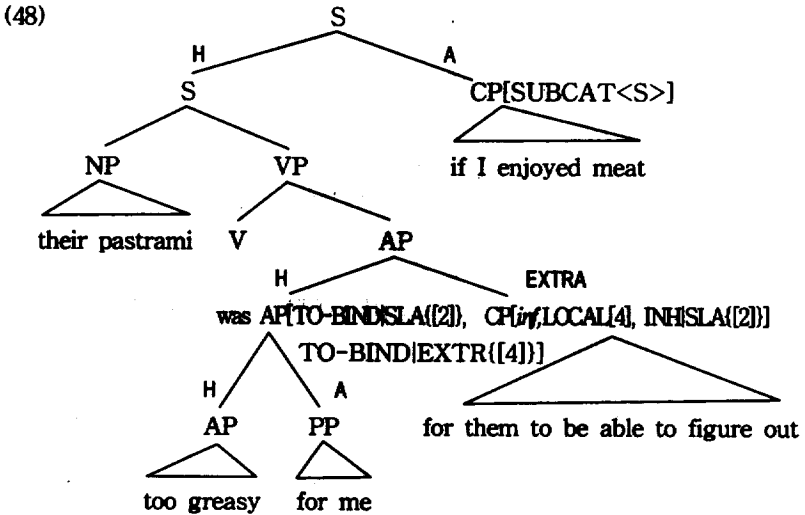


네번째 특징은 *too/enough*-구문은 유사 구문과 달리 'No Double [for NP]'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정시제 결과절은 (47a)의 예문에서처럼 두 개의 'for NP'를 허용하는 반면에 (47b)처럼 *tough*-구문은 단 하나의 'for NP'만 허용한다.(Chae(1992))

- (47) a. Their pastrami was too greasy for me for them to be able to figure out If I enjoyed meat.  
 b. \*Susy is unpleasant for Mary for John to go out with e.

본 논문에서는 (47a)의 *for them* 이하 부정시제구, CP[irf]라는 하나의 구성성분으로서 *too*가 허가하는 보어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for me*는 부가어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47b)의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for NP*가 단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 제약을 따로 설정해야 할 것이나 이 구문은 본 논문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47a)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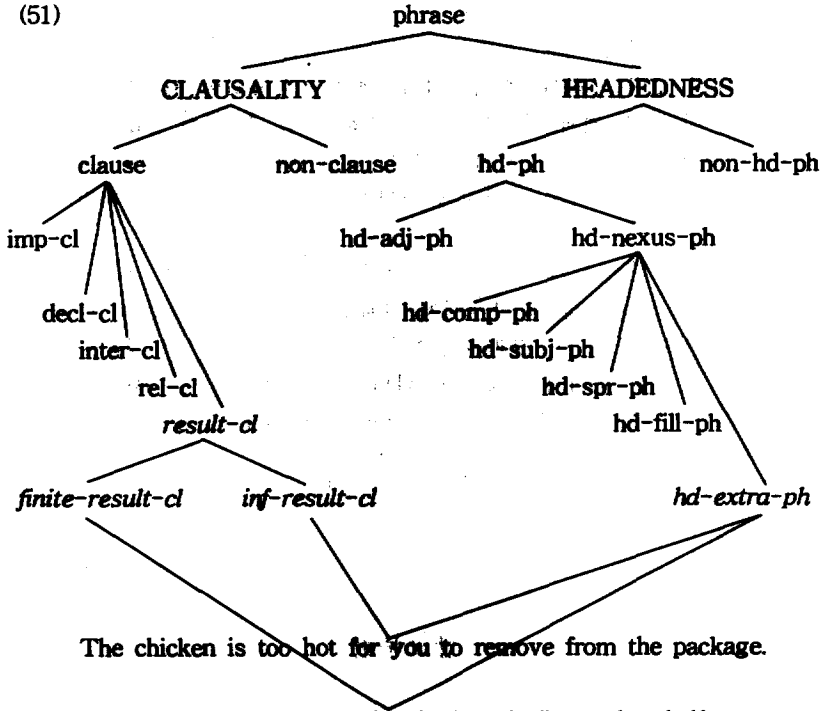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정시제 결과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ready-구문의 유형들처럼 복귀대명사를 허용한다는 사실이다.(Chae(1992))

- (49) a. John is *too* nasty for me to make friends with e.  
 b. John is *too* nasty for me to make friends with him.  
 c. \*It is *too* nasty for me to make friends with John.  
 d. \*For me to make friends with John is *too* nasty.
- (50) a. Two house is *ready* for Jim to buy.  
 b. The house is *ready* for Jim to buy it.  
 c. \*It is *ready* for Jim to buy the house.  
 d. \*For Jim to buy the house is *ready*.

이들 구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하위범주화 내용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too*가 새로운 하위범주화 내용을 갖는 또 다른 어휘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모문의 주어와 부정시제구속의 대명사가 공지시 된다는 사실을 현재로서는 나타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영어 결과절을 분석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Sag(1996)의 이론에 몇 가지 확장된 분석장치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1)의 구 유형도에 덧붙여 나타내면 다음 (51)의 이탤릭체 부분이 된다.

(51)



The chicken is too hot for you to remove from the package.

This book is so big that it doesn't fit on the shelf.

위 표에서 결과절 유형(result-cl)은 (7)의 다른 여러 절 유형들처럼 제약을 받는데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2) 절 유형들

TYPE	CONSTRAINT	ISA
(e)decl-cl	[CONTENT resultant]	clause

## 5. 결론

본 논문에서 다룬 결과절을 이끄는 등급어들(*so, such, too, enough*)은 *very, this, how* 등의 등급어들과 달리 핵어로서 각각 독특한 보어를 취하며 그 보어가 핵어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교소 등급어 *as*,

more, less 등과 같은 속성을 보인다.

따라서 영어의 비교 구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대영(1996)에서 제시되었던 외치 보어 규칙과 핵-추출소구 제약을 이용하여 결과절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밖에 결과절의 특성을 면밀히 살핀 후 이를 Sag(1987, 1992, 1996)의 제약이론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Sag(1996)의 절 유형에 결과절 유형을 추가하고 이를 다시 한정시제 결과절 유형과 부정시제 결과절 유형으로 나누었다.

enough는 유일하게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데 이는 한정시제 결과절을 이끄는 enough와 부정시제 결과절을 이끄는 enough로 나누어 분석하면 될 것이다. 또 이 결과절은 다른 결과절과 달리 표면적으로 핵어인 enough와 결과절 보어가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 문장의 분석시에도 소대영(1996)의 taller than Mary의 분석과 같이 외치 보어 규칙과 핵-추출소구 제약으로 분석된다.

부정시제 결과절이 복귀대명사를 허용하는 경우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소 대 영. 1996. 영어의 무한 불연속 외존 구문에 관한 연구. 언어연구 제 14집.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1996.
- Baker, C. L. *English Syntax*. The MIT Press. 1989.
- Baltin, M. R. On the Cyclicity of Extraposition. *Linguistic Inquiry* 6 465-468. 1975.
- Baltin, M. R. Degree Complements. in Geoffrey J. H. and Ojeda A. E.(eds.) *Syntax and Semantics* 20. 11-26. 1987.
- Bresnan, J.W. Syntax of the Compar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4.3, 273-345. 1973.
- Chae, H. R. *Lexically Triggered Unbounded Discontinuities In English. An Indexed Phrase Structure Grammar Approach*. Ph. D. Dissertation O.S.U. 1992.
- Chomsky, N. On Wh-Movement. in P.W. Culicover, T. Wasow, and A. Akmajian, eds., *Formal Syntax*. Academic Press, New York. 1977.
- Culicover, P. W. *Syntax*. Academic Press, 1982.
- Gazdar, G. Unbounded Dependencies and Coordinate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12.2. 155-184. 1981.
- Gazdar, G., Evan K., Geoferry, P. and Ivan Sag.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 Grammar*. Blackwell. 1985.
- Guéron, J and Robert May. Extraposition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15.1, 1-31. 1984.
- McCawley, J. D. *The Syntactic Phenomena of English*. Vol. 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8.
- Newmeyer, F. *Linguistic Theory in America*. Academic Press. 1986.
- Pollard, C. & Ivan A. Sag.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1 :Fundamentals. CSLI Lecture Note no. 13. Stanford; CSLI. 1987.
- Pollard, C. & Ivan A. Sa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Stanford; CSLI. 1992.
- Radford, A.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Radford, A.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Sag, I. A.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To appear in *Journal of Linguistics*. 199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91-1

경동대학교 관광영어통역과

219-830

Email: dysoh@kyungdong.ac.kr

전화: +82-392-639-0313

접수일자: 1999. 10. 11.

게재일자: 1999. 10. 22